

2019학년도 4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1교시 국어 영역 •

1	③	2	⑤	3	③	4	⑤	5	⑤
6	③	7	③	8	④	9	④	10	⑤
11	④	12	①	13	②	14	④	15	①
16	④	17	⑤	18	③	19	③	20	⑤
21	①	22	⑤	23	④	24	⑤	25	⑤
26	④	27	③	28	①	29	②	30	③
31	③	32	③	33	④	34	①	35	⑤
36	②	37	④	38	⑤	39	②	40	④
41	⑤	42	①	43	②	44	⑤	45	②

[화법]

1. [출제의도] 말하기 방식의 적절성 파악하기

1문단에서 ‘여러분은 식품을 살 때 유통기한을 확인하시나요?’라고 질문을 던지는 방식을 사용하여 청취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2. [출제의도] 말하기 계획의 적절성 파악하기

외국에서 유통기한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방송 내용에 드러나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2문단의 ‘설정실험은 보통 ~ 유통기한을 정합니다.’에 드러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3문단의 ‘빵이나 두부, 어묵 등’, 4문단의 ‘통조림이나 식용유 등’에 드러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3문단의 ‘제조사가 의도하는 ~ 유통기한을 설정합니다.’, 4문단의 ‘가속 실험은 실제 ~ 유통기한을 설정합니다’에 드러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3문단의 ‘이 실험은 ~ 제품에는 비효율적이지요’, 4문단의 ‘이 방법은 ~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에 드러나 있으므로 적절하다.

3. [출제의도] 청자의 반응 분석하기

3문단에서 ‘예측되는 유통기한이 대개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실측실험을, 그 이상인 경우에는 가속실험을 합니다’라고 이미 다루고 있는 내용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청취자 1’은 유통기한에 대한 자신의 배경지식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청취자 2’는 3문단에서 ‘실측실험’이 ‘가장 정확하게 설정할 수 있으며’라고 말한 내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청취자 4’는 5문단에서 ‘미국은 유통기한도 ~ 소비기한을 사용합니다.’라는 정보의 유용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청취자 5’는 2문단에서 ‘실험을 통해 산출된 기간보다 20 ~ 30% 짧게 유통기한을 정합니다’라고 말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된 내용을 추론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화법 · 작문]

4. [출제의도] 글쓰기 계획 파악하기

(가)의 3문단에서 버스정보 안내단말기의 고장 및 오작동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였으나 비용 손실을 언급하여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2문단의 ‘이미 설치된 ~ 작동이 멈춰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를 통해 문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3문단의 ‘예산 문제로 ~ 단계적으로 안내단말기를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를 통해 건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3문단의 ‘시정 홈페이지에 ~ 게시판을 만든다면’을 통해 효과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1문단의 ‘뉴스를 보면 ~ 알 수 있습니다.’를 통해 중심 소재와 관련된 현황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5. [출제의도] 말하기 방식 파악하기

[A]에서 ‘학생 2’가 ‘그런데 둘째 문단에서 ~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질문한 것에 대해 ‘학생 3’이 ‘통계 자료를 제시해서 ~ 보여 주면 좋겠어.’라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B]에서 ‘학생 2’가 ‘그런데 어떻게 하면 ~ 인상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한 것에 대해 ‘학생 3’이 ‘마지막 문단에서 ~ 필요성을 강조하면 좋을 것 같아.’라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A]에서 ‘통계 자료를 제시해서 ~ 보여 주면 좋겠어.’라는 ‘학생 3’의 의견에 대해 ‘학생 2’가 ‘그런데 글을 읽다가 ~ 불편하지는 않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나, [B]에서 ‘학생 2’가 ‘학생 1’의 의견에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은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6. [출제의도] 건의문 내용 추가하기

(가)의 2문단에 ‘또한 현재 버스정보 안내단말기는 ~ 겪고 있습니다.’에 교통 약자층의 어려움이 이미 제시되어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나)의 ‘학생 3’의 첫 번째 발화에서 ‘내 생각에는 시장님의 노고에 ~ 예의와 격식을 갖추는 것이 좋을 것 같아.’와 ‘학생 2’의 두 번째 발화에서 ‘그 생각은 ~ 추가해 볼게.’로 볼 때 적절하다. ② (나)의 ‘학생 3’의 두 번째 발화인 ‘통계 자료를 제시해서 ~ 보여 주면 좋겠어.’와 ‘학생 2’의 네 번째 발화인 ‘그럴 수 있겠네, 조사해서 반영해 볼게.’로 볼 때 적절하다. ④ (나)의 ‘학생 1’의 네 번째 발화인 ‘우리 시에는 ~ 제공됐으면 좋겠어.’와 ‘학생 2’의 여섯 번째 발화인 ‘아, 그거 좋은 ~ 반영해서 써 볼게.’로 볼 때 적절하다. ⑤ (나)의 ‘학생 3’의 다섯 번째 발화인 ‘마지막 문단에서 ~ 강조하면 좋을 것 같아.’와 ‘학생 2’의 일곱 번째 발화인 ‘좋아, 그렇게 해 볼게.’로 볼 때 적절하다.

7. [출제의도] 고쳐 쓰기의 적절성 파악하기

‘어려움’은 문맥에 맞는 단어이므로 ‘난해함’으로 고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난해함’은 ‘뜻을 이해하기 어려움’이라는 의미이다.

① ㉠은 주어인 “버스정보 안내단말기(BIT)”가’와 호응이 되지 않으므로 ‘설치되고’로 고치는 것은 적절하다. ② ㉡은 연결된 앞뒤 문장이 순접 관계에 있으므로 ‘그리고’로 고치는 것은 적절하다. ④ ‘이용하기’는 목적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므로 ㉢에 ‘시각 정보를’를 첨가하는 것은 적절하다. ⑤ ㉣은 글의 내용과 관련이 없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작문]

8. [출제의도] 글쓰기 전략의 적절성 파악하기

㉢은 예상 독자인 주민들 중 탑을 복원하자는 의견을 지닌 경우가 있음을 분석한 것이며, (다)의 4문단에서 탑의 건축 과정을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에서 예상 독자가 문화재 복원과 보존에 대해 잘 모른다는 것을 분석하여, (다)의 1문단에서 복원과 보존의 의미를 설명했으므로 적절하다. ② ㉡에서 예상 독자가 우리 지역 탑의 현재 상태를 궁금해한다는 것을 분석하여, (다)의 2문단에서 탑의 상층부 대부분이 훼손되었음을 제시했으므로 적절하다. ③ ㉢에서 예상 독자가 우리 지역 탑을 복원하거나 보존하려는 이유를 궁금해한다는 것을 분석하여, (다)의 2문단에서 탑을 복원하면 완전한 형태의 문화재를 보여 줄 수 있다는 효과를 언급했으므로 적절하

다. ⑤ ㉤에서 예상 독자가 탑을 복원하자는 의견을 지닌 경우가 있음을 분석하여, (다)의 6문단에서 복원보다 보존을 중시하는 국제적인 흐름을 언급하여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임을 강조했으므로 적절하다.

9. [출제의도] 자료를 활용하여 주장을 뒷받침하기

㉢에서는 탑을 이전해야 한다면 주변 공간과의 조화를 고려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으나 (다)에서는 새로운 공간과의 조화를 고려해서 우리 지역 탑을 이전해야 함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에서 제시된 ○○사의 탑이 세워진 배경을 근거로, (다)의 3문단에서 백성들의 평화로운 삶을 기원하기 위해 탑을 만들었다는 역사적 의미를 제시했으므로 적절하다. ② ㉡에서 고택 복원 시 원래의 나무와 다른 품종의 나무를 사용하여 본연의 모습을 되살리지 못했다는 내용을 근거로, (다)의 4문단에서 탑의 원래 재료를 활용하지 못하면 탑을 복원하더라도 옛 모습을 온전하게 되살리기 어렵다는 우려를 드러냈으므로 적절하다. ③ ㉢에서 건축 과정에 대한 과거의 정확한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고택 지붕을 복원하여 본연의 모습을 되살리지 못했다는 내용을 근거로, (다)의 4문단에서 탑과 관련한 건축 과정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소실된 상태에서는 탑을 복원하더라도 옛 모습을 온전하게 되살리기 어려움을 제시했으므로 적절하다. ⑤ ㉤에서 제시된 전문가의 의견을 근거로, (다)의 5문단에서 우리 지역의 탑이 절 내부 건축물들과의 조화를 고려해서 세워졌음을 드러냈으므로 적절하다.

10. [출제의도] 근거를 바탕으로 반박하는 글쓰기

[A]에서는 탑을 복원하면 탑에 담긴 역사적 의미가 사라져서 그 의미를 온전하게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형태가 훼손되었더라도 탑을 보존하는 것이 진정한 역사 교육을 위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보기>에서는 건축 문화재를 복원하는 것은 원형에 가깝게 완성된 탑의 모습을 통해 과거의 문화적 양식이나 아름다움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역사 교육에서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재의 보존만이 역사 교육에 효과적이라고 보는 것은 복원을 통해 완성된 형태가 주는 교육적 의미를 간과한 것이라는 주장은 <보기>의 입장에서 [A]를 반박할 내용으로 적절하다.

[문법]

11. [출제의도] 이형태의 특징 이해하기

㉢과 ㉣은 손아랫사람을 부를 때 쓰는 호격 조사로 그 의미가 서로 동일하다. ㉢은 모음 뒤에만 쓰이고, ㉣은 자음 뒤에만 쓰이므로 ㉢과 ㉣은 서로 상보적 분포를 보이는 음운론적 이형태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과 ㉣은 형태론적 이형태 관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12. [출제의도] 중세 국어 부사격 조사의 이형태 이해하기

㉢의 앞말 모음이 ‘이’이므로 ㉢에는 ‘예’가, ㉣의 앞말 모음이 양성 모음이므로 ㉢에는 ‘애’가, ㉣의 앞말 모음이 음성 모음이므로 ㉢에는 ‘에’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 ㉣은 모두 부사격 조사로, 앞말 모음의 성질에 따라 상보적 분포를 보이므로 음운론적 이형태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13. [출제의도] 사동문과 피동문의 서술어 자릿수 파악하기

㉠의 ‘눅았다’는 주어를 필요로 하는 한 자리 서술어

이고, ㉔의 ‘녹였다’는 사동사로 주어와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㉕의 ‘보았다’는 주어와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고, ㉖의 ‘보였다’는 피동사로 주어를 필요로 하는 한 자리 서술어이다. 따라서 ㉔은 사동문이며, ㉕과 서술어 자릿수가 같다.

14. [출제의도] 음운의 변동 이해하기

㉔ ‘같이[가치]’는 구개음화가, ㉕ ‘난로[날:로]’는 유음화가 일어난다. 이는 음운 교체에 해당하므로 음운의 수에 변화가 없다. 따라서 A에 해당한다. ㉖ ‘집안 일[지반닐]’은 ‘ㄴ’ 첨가가 일어나므로 음운의 수가 늘어난다. 따라서 B에 해당한다. ㉗ ‘좋은[조:은]’은 ‘ㅎ’탈락이, ㉘ ‘웁는[웁:는]’은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난다. 이는 음운 탈락에 해당하므로 음운의 수가 줄어 들지만 새로운 음운은 없다. 따라서 C에 해당한다. ㉙ ‘얹고[안코]’는 ‘ㅎ’과 ‘ㄱ’이 만나 새로운 음운인 ‘ㄱ’이 되는 음운 축약이 일어난다. 따라서 D에 해당한다.

15. [출제의도] 사전 활용하기의 적절성 파악하기

㉑은 ‘-겠-’ 뒤에 붙어 쓰여 의문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지3’에 해당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과학·기술]

[16~20] <출전> 정용욱 외, 「전기자동차」

16. [출제의도] 사실정보 파악하기

2문단에서 ‘영구자석 사이에는 항상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㉑ 2문단에서 회전자는 ‘도선으로 감겨 있고’라고 했고 3문단에서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성’된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㉒ 3문단에서 ‘전자기력의 영향으로 ~ 회전력이 전달’된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㉓ 5문단에서 ‘대부분의 전기 자동차에는 회생제동 장치뿐만 아니라 일반 자동차에 사용되는 마찰제동 장치가 함께 장착되어’ 있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㉔ 6문단에서 ‘이 과정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 전체 제동력은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다.’라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17. [출제의도] 핵심 원리 이해하기

㉑는 ㉑로부터 신호를 받아 제동을 할 뿐 ㉑가 발생시킬 제동력의 크기를 계산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㉑ 4문단에서 ㉑를 밟게 되면 전동기로 공급되는 전류가 차단되어 회전자를 돌리는 전기 에너지는 사라지고 회전자는 바퀴의 운동 에너지로 돌아가게 됨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㉒ 6문단에서 ㉑에 있는 센서가 페달을 밟은 압력의 정도를 인식하여 전기적 신호를 전자제어 장치로 보낸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㉓ 6문단에서 ㉑는 ㉑에서 보낸 신호를 바탕으로 현재 자동차 운행 상태와 배터리의 충전 상태 등을 고려하여 제동력을 계산한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㉔ 6문단에서 ㉑가 ㉑에 신호를 보내 이 신호가 배터리와 전동기의 연결을 차단하여 회생제동이 발생한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18. [출제의도] 주어진 내용을 바탕으로 추론하기

㉑의 경우 승강기의 전동기는 발전기의 기능을 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상황이므로 도선에 전류가 공급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㉑ ㉑의 경우 균형추가 중력에 의해 움직여 회전축을 돌리는 역할을 하는데, 이는 달리던 전기 자동차의 관성에 의해 회전하는 바퀴가 회전자를 돌려 회전축이 돌아가는 것과 유사하므로 적절하다. ㉒ ㉑의

경우 전동기가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여 탑승카를 움직이게 되므로 적절하다. ㉓ ㉑, ㉑ 모두 전동기가 발전기의 기능을 하는 경우이므로 적절하다. ㉔ ㉑, ㉑ 모두 전기를 사용하여 탑승카를 작동하는 경우이므로 적절하다.

19. [출제의도] 핵심 과정 이해하기

4문단에서 회생제동이 일어날 때 제동 과정에서 만들어진 전기 에너지는 전압변환 장치의 작용을 통해 배터리에 저장된다고 하였고, 5문단에서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된 상황에서는 생성된 전기 에너지를 저장할 수 없어 회생제동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20. [출제의도] 다의어의 의미 파악하기

㉑은 ‘전기나 가스 파위가 선이나 관을 통하여 지나가다.’의 뜻으로 사용되었으므로 ㉑가 문맥적 의미가 가장 유사하다.

㉑은 ‘빛, 소리, 향기 파위가 부드럽게 퍼지다.’의, ㉒는 ‘새어서 빠지거나 떨어지다.’의, ㉓은 ‘어떤 한 방향으로 치우쳐 쏠리다.’의, ㉔는 ‘시간이나 세월이 지나가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사회]

[21~25] <출전> 오정일 외, 「법경제학입문」

21. [출제의도] 사실적 정보 확인하기

6문단에서 비교과실의 특징과 장점은 드러나지만 한계는 드러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㉒ 1문단의 ‘타인의 권리를 ~ 불법행위라고 하는데’를 통해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㉓ 1문단의 ‘불법행위법은 불법행위로 ~ 기능을 한다’를 통해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㉔ 2문단의 ‘주의 수준이란 ~ 정도를 의미한다.’를 통해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㉕ 6문단의 ‘비교과실은, 양측에 ~ 것과 구별된다.’를 통해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22. [출제의도] 세부 내용 이해하기

3문단의 ‘과실원칙에서는 가해자에게만 주의 기준이 부여되므로’를 통해 ㉑은 피해자에게 주의 기준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5문단에서 ‘먼저 기여과실은 ~ 피해자의 과실로 정의하여’를 통해 ㉑은 피해자의 과실 여부를 판단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㉑은 ㉑과 달리 피해자의 과실 여부를 판단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23. [출제의도] 주어진 내용을 바탕으로 추론하기

2문단에서 ‘일반적으로 불법행위 억제를 위한 주의 비용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합이 최소화되는 지점이 사회적 효율성이 달성되는 최적의 주의 수준’이며 ‘이것이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주의 수준이므로 법원은 이를 주의 기준으로 정한다’고 하였다. 또한 4문단에 따르면 엄격책임원칙의 경우 ‘가해자의 주의 수준’이 ‘사회적 효율성이 달성되는 최적의 주의 수준으로 유도된다’고 했고, 과실원칙의 경우 가해자가 ‘주의 기준을 지키려 한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24. [출제의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보기>에 따르면 학생은 영화 속 장면에 대해 엄격책임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3문단의 ‘이 두 원칙은 ~ 점에서 공통적이다.’를 통해 엄격책임원칙은 가해자의 과실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고, 4문단의 ‘반면 엄격책임원칙을 적용하면 ~ 배상해야 하므로’를 통해 엄격책임원칙은 항상 모든 손해를 가해자가 배상해야 함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㉑ 을이 제조한 변압기가 갑에게 화상이라는 손해를 입힌 것은 1문단의 불법행위의 정의에 부합하고, <보기>에서 학생은 이에 엄격책임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㉒ 3문단에 따르면 ‘반면 엄격책임원칙은 ~ 지는 원칙이다.’라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㉓ 3문단에 따르면 ‘이 두 원칙은 ~ 점에서 공통적이다.’라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㉔ 3문단에 따르면 ‘불법행위에 대해 피해자의 책임 여부는 고려하지 않고’라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25. [출제의도]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추론하기

x*는 가해자의 주의 기준이고, y*는 피해자의 주의 기준인데, B와 D의 경우 가해자는 모두 주의 기준을 지켜 과실이 없다. 6문단의 ‘가해자에게 과실이 없으면 ~ 책임이 없고’를 보면 비교과실을 적용했을 때 가해자에게 과실이 없으면 배상 책임이 없다. 따라서 B와 D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가 과실에 비례하여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분담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㉑ A는 가해자가 주의 기준을 지키지 않아 과실이 있고 피해자는 주의 기준을 지켜 과실이 없는 경우인데, 6문단의 ‘가해자에게 과실이 있고 ~ 배상 책임이 있다’를 통해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㉒ B는 가해자가 주의 기준을 지켜 과실이 없는 경우인데, 3문단의 ‘과실원칙에서는 가해자에게만 ~ 지지 않는다.’를 통해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㉓ C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가 주의 기준을 지키지 않아 과실이 있는 경우인데, 5문단의 ‘과실원칙에 기여과실이 결합된 ~ 전적으로 부담하게 된다.’를 통해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㉔ A와 C는 가해자가 주의 기준을 지키지 않아 과실이 있는 경우인데, 3문단의 ‘가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가해자가 전적으로 배상 책임을 지고’를 통해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인문]

[26~30] <출전> 추병완 외, 「윤리교육연구」

26. [출제의도] 내용 전개 방식 파악하기

특정 개념인 ‘자기 조절’을 중심으로 ‘사회 인지 이론’과 ‘자기 통제 힘 이론’을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도덕적 행동이라는 문제 상황에 대한 원인과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27. [출제의도] 핵심 개념에 대한 세부 내용 파악하기

1문단의 ‘자기 조절은 목표 달성을 위해 ~ 자기 조절의 실패를 의미한다.’를 보면 행동을 바꾸려는 시도를 한 것은 자기 조절의 성공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㉑ 3문단의 ‘바우마이스터는 그중 에너지의 양이 ~ 특히 에너지의 양적인 측면을 중시한다.’를 보면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㉒ 2문단의 ‘밴두라의 사회 인지 이론에서는 ~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본다.’를 보면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㉓ 4문단의 ‘밴두라에 따르면, 인간은 ~ 자기 조절에 실패한다는 설명이 가능하다.’를 보면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㉔ 4문단의 ‘도덕적 표준과 일치하는 ~ 자기 조절의 성공에 해당한다’를 보면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28. [출제의도] 두 개념의 공통점 파악하기

4문단의 ‘자신이 지향하는 목표를 ~ 자기 효능감이 신장되면’과 5문단의 ‘자신의 목표 달성 경험을 ~ 자기 조절의 자동화로’를 통해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29.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2문단의 ‘자기 검열은 ~ 자신의 행동을 감독,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와 ‘자기 판단은 ~ 행동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를 보면, P 씨가 자신이 하고자 하는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자기 검열이 아닌 자기 판단에 해당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P 씨가 다짐한 대로 운동을 한 후 느낀 만족감은, 2문단에서 자신이 한 행동 이후에 자신에게 부여하는 정서적 현상을 의미하므로 적절하다. ③ P 씨가 비교적 여유로운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매일 충실하게 운동하기로 다짐한 것은, 2문단에서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자신이 하고자 하는 행동을 결정한 것이므로 적절하다. ④ P 씨가 식단에 따라 식사를 하지 못해 수치심을 느꼈다면 이는, 2문단에서 자신이 지향하는 목표와 관련된 개인적 표준에 부합하지 않은 행동으로 인한 자기 반응에 해당하므로 적절하다. ⑤ P 씨가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목표와 관련하여 자신의 편식하는 행동을 냉철하게 관찰하는 것은, 2문단에서 감정을 배제하고 자신이 지향하는 목표와 관련하여 현재 자신의 행동을 관찰하는 자기 검열에 해당하며 이는 자기 조절의 첫 단계에 해당하므로 적절하다.

30. [출제의도] 주어진 내용을 바탕으로 추론하기

3문단의 ‘그런데 에너지를 많이 ~ 일부를 남겨 두기 때문이다.’를 보면, 을이 예외적인 상황을 대비하여 남겨 둔 에너지마저 모두 소모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 4문단의 ‘벤두라에 따르면, 인간은 ~ 실패한다는 설명이 가능하다.’와 ‘하지만 자기 판단 과정에서 ~ 자기 조절의 실패에 해당한다.’를 보면, 모든 책임은 자신이 지켰다는 상사의 지시는 갑으로 하여금 책임의 전가라는 자기 면책적 사고를 유발했다고 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4문단의 ‘교육 등의 사회화를 통해 내면화한 보편적인 도덕규범인 도덕적 표준’을 보면, 모든 인간의 생명은 소중하다는 갑의 신념을 도덕적 표준으로 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5문단의 ‘인간의 에너지는 유한하기 때문에 ~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를 보면, 을이 극심한 고민 끝에 상사에게 자신의 실수를 털어 놓는 행동에 자신의 유한한 에너지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여 직후의 자기 조절에 실패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3문단의 ‘이 이론에서 말하는 자기 조절은 개인의 목표 성취와 관련된 개인적 표준’과 5문단의 ‘보편적 도덕규범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개인적 표준’을 보면, 을이 평소에 가지고 살아 왔던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보편적 도덕규범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개인적 표준으로 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현대시]

[31 ~ 33] <출전> 박목월, 「사향가」

박남준, 「따뜻한 얼음」

31. [출제의도] 표현 방식의 공통점 파악하기

(가)의 ‘새까만 밤’, ‘깃벌건 그 무늬’에서, (나)의 ‘푸른빛을 잃지 않고’에서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을 감각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32.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 감상하기

‘땅위와 땅아래를 분간하지 않고’ ‘그렇저렇 사는’ ‘그들의’ 모습은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적 공간인 고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나타낸 것일 뿐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화자의 모습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막막한 지역’은 화자가 있는 현실적 공간을, ‘영혼의 나라’는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적 공간을 드러내며, 5연에서 ‘이제라도 갈까부다’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이상적 공간을 지향하는 화자의 소망이 드러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그나라’는 고향을 의미하며 ‘그나라’의 ‘백성’이 ‘이슬 자욱한 풀밭으로’ ‘맨발로

다니는’ 모습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지닌 낙원의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새까만 밤을 달릴까부다’에서 고향에 가고 싶다고 생각하였으나 ‘이자리에 앉아서’ ‘돌로 화하는’ 것에서 고향에 도달할 수 없다는 화자의 인식이 드러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귀양온 영혼’이 ‘손에는 쇠고랑’을 하고 ‘무서운 형벌’을 받고 있는 것에서 화자가 고통을 겪는 현실이 드러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33. [출제의도] 시 구절의 의미 파악하기

㉔에서 ‘쫓기고 내몰린 것들’은 고립된 대상이라고 볼 수 있으나 ‘얼음’의 속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얼음’과 같은 존재가 ‘겨안’는 대상을 나타낸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㉔에서 ‘옷을 껴입듯’이라는 인간의 행위에 빗대어 ‘추위가 더할수록’ ‘두께가 깊어지는’ ‘얼음’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㉔에서 ‘절모르는 돌팔매로부터 겁 많은 물고기들’을 ‘놀라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는, 즉 다른 대상을 보호하려는 ‘얼음’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㉔에서 ‘제 몸의 온기란 온기’를 ‘세상에 다 전하고’ ‘스스로 차디찬 알몸’이 되었다는 것은 자기희생적인 ‘얼음’의 속성을 드러낸 것이므로 적절하다. ⑤ ㉔에서 화자가 예찬하는 가치를 지닌 ‘얼음’의 속성을 ‘몸을 다 바쳐서 피워내는 사랑이라니’와 ‘그 빛나는 것이라니’로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현대소설, 시나리오]

[34 ~ 38] <출전> 오정희, 「겨울 뚝부기」

이청준, 「천년학」

34.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 이해하기

[A]에서는 ‘오빠는 참 ~ 자란다고 했다.’에서 과거 오빠가 ‘죽은 풍뎡이’와 ‘꽃씨’에 대해 알려 준 사건이 제시되어 있고, 이에 대한 ‘오빠는 참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나의 생각이 드러나 있고, [B]에서는 ‘아버지의 마지막은 ~ 갑자기 돌아가셨다.’에서 과거 아버지가 돌아가신 사건이 제시되어 있고, 이에 대한 ‘내게 더 ~ 끊으신 것만 같어.’라는 송화의 생각이 드러나 있으므로 적절하다.

35. [출제의도] 인물의 심리 파악하기

㉔에는 동호와 헤어진 후 주막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살고 있는 송화의 마음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㉔에는 어머니가 호랑이에게 물려갔다는 오빠의 대답으로 내가 운 것에서 나의 ‘걱정’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㉔에는 2년 동안 소식 없던 오빠에 대한 소식이 담긴 봉투를 뜯는 손이 떨렸다는 것에서 나의 ‘긴장감’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㉔에는 형편이 어려워 나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피로운 부탁만 늘어놓는 것에서 오빠의 ‘미안함’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㉔에는 동호가 탄피 반지를 전해 주고 돌아선 후 송화가 눈물을 글썽거린 것에서 송화의 ‘슬픔’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적절하다.

36.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 감상하기

(가)에서 오빠가 어머니의 ‘금반지’를 들고 나간 이후, ‘틀림없이 갚’겠다는 결박하게 돈을 보내 달라는 편지를 내게 보낸 것을 통해 오빠의 형편이 나아졌다는 것을 알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가)에서 ‘비단 구두를 사’을 것이라고 소원하게 했던 오빠에게서 ‘돈을 부치라는’ ‘엄서를 받은’ 것을 통해 오빠에 대해 내가 가졌던 기대감이 변화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나)에서 송화가 ‘탄피 반지’를 받으며 들은 말을 기억하고 반지를 ‘옛날 그

대로’의 상태로 끼고 있는 것을 통해 송화가 동호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나)에서 송화가 그동안 보지 못한 동호에게 ‘애는 잘 자라나’라고 묻은 것에 동호가 ‘많이 컸어’라고 답한 것을 통해 송화와 동호가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상황이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나)에서 동호가 송화를 만나기 전에 ‘점자공부’를 하고 ‘라디오 연속극 테이프’를 모았다고 송화에게 얘기한 것을 통해 동호가 송화를 위하는 마음이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37. [출제의도] 소재의 의미 파악하기

‘편지’에는 오빠의 가족들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는 정보가 담겨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오빠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고, ‘말’에는 제주 뱃사람으로부터 얻어왔다는 송화의 과거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어 송화가 제주도에도 있을 수도 있다는 상황을 짐작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38. [출제의도] 시나리오의 특징 이해하기

#134에서 송화의 손을 클로즈업한 것은 오랜만에 만난 동호의 시선을 부끄러워한 것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지 송화를 원망하는 동호의 시선을 회피하려는 의도를 부각한 것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89에서 송화의 이펙트로 제시되고, #90에서 송화의 대사로 이어지는 것을 통해 장면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화면에 나타나지 않았던, 방문 안 송화가 부르는 노래가 #131에서 이펙트로 제시되는 것을 통해 방문 안 송화의 존재를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송화가 부르는 노래가 #131에서 제시되고, #132에서 송화가 부르는 노래가 이펙트로 제시되는 것을 통해 자연스럽게 장면이 전환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134에서 라디오와 점자판이 놓여 있는 책상을 클로즈업한 것은 앞이 보이지 않는 송화의 일상을 부각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고전소설]

[39 ~ 42] <출전> 작자 미상, 「숙영낭자전」

39. [출제의도] 작품의 특징 파악하기

꿈과 현실이 교차되는 장면은 드러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상공이 남자의 방에서 나는 남자의 소리를 듣고 ‘혼자 말하’며 ‘의혹과 분함’을 느꼈으므로 적절하다. ③ 상공과 남자의 대화에서 갈등이 선명하게 드러나므로 적절하다. ④ ‘누명을 벗기 어려운 ~ 어찌 더 살 뜻이 있으리오’와 ‘그 불쌍하고 애달픈 ~ 볼 수 없더라’에서 서술자의 주관적 평가가 드러나므로 적절하다. ⑤ ‘꽃처럼 고운 남자의 ~ 피가 샘처럼 솟아났다’는 묘사를 통해 남자가 처한 상황이 드러나므로 적절하다.

40. [출제의도] 작품의 내용 이해하기

‘낭자’가 ‘아이’를 달래는 척한 것은 ‘선군’이 방문한 사실을 ‘상공’에게 숨기기 위한 행동이었으므로 적절하다.

① ‘낭자’는 ‘선군’에게 집으로 오지 말라고 당부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선군’은 ‘낭자’에게 그림을 요청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낭자’는 ‘매월’과 이야기를 나눈 일이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상공’이 ‘매월’을 부른 것은 남자의 말이 진실인지 확인하기 위함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41.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 감상하기

낭자는 외간 남자를 만난 적이 없으며, 낭자가 정절

을 지키지 못했다고 생각한 것은 상공의 오해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남자와 선군 부부는 함께 있고 싶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헤어진다는 점에서 애틋한 사랑이 드러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상공의 명에 의해 남자가 감시당하며 자유로운 삶을 제한당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남자가 하인들에게 매질을 당하는 것은 폭력에 희생당하는 비극적 삶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선군이 남자와 함께 있고 싶지만 억지로 과거를 보러 떠나는 것을 통해 입신출세가 요구되는 남성의 삶이 드러나므로 적절하다.

42. [출제의도] 인물의 심리 파악하기

㉠은 남자가 잘못이 없음에도 상공에게 문초를 당하며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을 호소하는 말이다. 따라서 ‘뼈에 사무치게 맺힌 원한’을 뜻하는 ‘각골통한(刻骨痛恨)’이 적절하다.

②는 ‘고국의 멸망을 한탄함’을, ③은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④는 ‘마음에서 마음으로 뜻이 통함’을, ⑤는 ‘효도하고자 할 때에 이미 부모를 여의고 효를 다하지 못하는 자식의 슬픔’을 이르는 말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고전시가]

[43 ~ 45] <출전> 이세보, 「상사별곡」

43. [출제의도] 표현상의 특징 파악하기

공간의 이동을 활용하여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드러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즈네 사정 님가 알고 님 사정 즈네 알니’에서 대구의 방식을 활용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흥중의 불이 나니 구회간장 다타간다’에서 화자의 마음을 ‘불’에 빗대어 화자의 심정을 부각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송안성’에서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화자의 상황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어이 이것슬가’에서 설의적인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생각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44.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 감상하기

‘오는 글발 가는 스연’을 ‘즈즈획획 다정턴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오고 가는 ‘글발’과 ‘스연’을 임과 이별하게 된 원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황미시절(黃梅時節) 떠난 이별 만학단풍(萬壑丹楓) 느꼈스니’를 보면 화자가 임과 이별한 기간이 오래 되었음을 알 수 있고, ‘인간의 일이 만코 조물(造物)이 시괴런지’를 보면 임과 재회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로 ‘인간의 일’이나 ‘조물’과 같은 외적 요인을 떠올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황미시절(黃梅時節) 떠난 이별 만학단풍(萬壑丹楓) 느꼈스니’를 보면 화자가 임과 이별한 기간이 오래 되었음을 알 수 있고, ‘삼하삼추(三夏三秋) 지나가고 낙목한천(落木寒天) 또 되엿네’를 보면 계절의 흐름이 드러나 있으므로 임과 이별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딴인난 긴 한숨의 눈물은 몇때런고’를 보면 오지 않는 임을 기다리며 화자가 느끼는 상사의 아픔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청산녹수 증인두고 초성빅넌 서로 땡세’를 보면 화자가 자신과 임이 땡세를 한 과거를 떠올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일부일 월부월의 운우지락(雲雨之樂) 협홉할제’를 보면 자신과 임이 행복했던 과거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45. [출제의도] 소재의 기능 파악하기

㉠은 임과 이별한 화자의 애타는 상황을 드러내는 소재이고, ㉡은 화자가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드러내는 소재이므로 적절하다.